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2013년 3월 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수출입과 조영태 과장(2110-5331), 이디도 사무관(5335)

한국, 2012년 세계 무역 8강 진입
- 미국 1위 유지, 중국 2위로 바짝 추격 -

< 세계 무역 순위 변화와 시사점 >

◇ WTO의 세계무역통계*에 따르면, '12년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1조 675억 달러로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였고, 미국 1위·중국 2위로 바짝 추격

* 최근 WTO홈페이지(www.wto.org)에 발표된 70개국별 월간 실적을 토대로 추산한 잠정치 기준

◇ 지난 10년간 중국과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, 독일 및 네덜란드는 선전을 지속했으나 일본·이탈리아 등은 다소 부진

◇ 향후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, 중계·복합무역 진흥, 국내 수출기반 유지 등이 과제

1. '12년 세계 무역 순위

□ 우리나라는 최근 EU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'12년 이탈리아(9위)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진입(WTO 통계 기준)

○ '02년도 13위에서 10년만에 8위로 진입하는 역동적 성장세 시현

* 우리나라 무역 순위 변화 : ('00) 13 → ('03) 12 → ('07) 11 → ('09) 10 → ('10) 9 → ('12) 8

□ 각 국가별로는 미국이 중국(2위)과 근소한 차이로 세계 무역 1위 자리를 고수하는 가운데 독일(3위), 일본(4위) 등이 뒤를 이음

○ EU 재정위기에 의한 역내교역 둔화에 따라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부진한 반면, G2(美, 中)의 무역규모는 성장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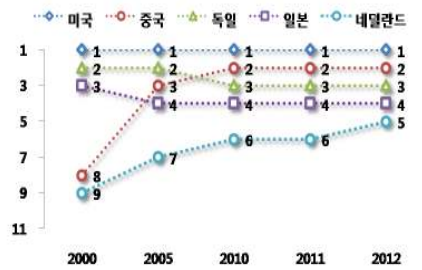
< '12년 국가별 무역순위 및 무역규모(단위 : 억 달러, 전년동기대비 %) >

순위	1	2	3	4	5	6	7	8	9	10
국가	미국	중국	독일	일본	네덜란드	프랑스	영국	한국	이탈리아	홍콩
교역	38,824	38,668	25,757	16,844	12,474	12,439	11,494	10,675	9,869	9,479
	(3.6)	(6.2)	(△5.5)	(0.4)	(△1.0)	(△5.0)	(3.5)	(△1.1)	(△8.7)	(△1.9)
수출	15,471	20,489	14,076	7,986	6,564	5,695	4,686	5,479	5,005	4,432
	(4.5)	(7.9)	(△4.4)	(△2.9)	(△0.7)	(△4.5)	(△1.0)	(△1.3)	(△4.3)	(△2.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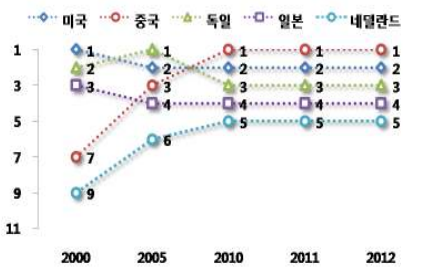
자료 : WTO, 주요 70개국 월간 실적을 토대로 추산한 잠정치로 향후 수정될 수 있음

2. 세계 무역 5강 분석

< 무역 5强('12년 기준) 무역순위 추이 >



< 무역 5强('12년 기준) 수출순위 추이 >



□ **(미국·중국)** 미국은 막대한 수입규모를 바탕으로 근소하게 교역 1위를 유지 중이나 중국이 '세계의 공장'으로 부상하며 조만간 추월 전망

○ 미국은 '00년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'10년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, 독일 등을 추월*하며 수출 1위 자리를 고수

* 연평균 수출증가율('00~'12, %) : (미국) 5.9 (중국) 19.2 (독일) 8.1 (일본) 4.3 (한국) 10.2

○ 미국과 중국의 교역액 차이*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곧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교역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**

* 美-中 교역액 차이(억 달러) : ('05) 12,118 → ('10) 2,746 → ('11) 1,044 → ('12) 156

** 중국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中 무역규모(38,668억 달러)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美 무역규모(38,628억 달러)를 추월하였으나 WTO통계로는 미국이 1위 유지

□ **(독일·일본)** 양국은 수출·교역 3, 4위의 무역강국이나 '00년 이후 독일 수출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반면 일본의 성장세는 둔화

* 수출금액('00→'12, 억 달러) : (독일) 5,518 → 14,076(연평균 8.1%↑) (일본) 4,792 → 7,985(4.3%↑)

** 무역수지('00→'12, 억 달러) : (독일) 546 → 2,395 (일본) 997 → △872

○ 독일은 중소기업(Mittelstand*)의 높은 기술력과 전문 인력 등 높은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수출경쟁력 확보

* 종업원 500명,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수출기업수의 98%, 수출액의 22%, 민간부문 고용의 80% 차지(독일의 1,500개 히든챔피언 기업 중 1,350개)

- 대외 경쟁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품목 구성*과 더불어 유로존 통합으로 인한 역내 교역 확대 기회 적극 활용

* 독일 주요 수출 품목('11년 비중) : 승용차(10.5), 자동차부품(3.6), 의약품(3.1), 항공기(1.9) 등

○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역 강국에 올랐으나 韓·中 등 후발국의 추월*, 엔高, 해외생산 확대** 등에 따라 수출 성장 둔화

* 수출시장 점유율('00→'11, %) : (일본) 7.4 → 4.5 (한국) 2.7 → 3.0 (중국) 3.9 → 10.4

** 日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(매출액 기준, %) : ('00) 11.7 → ('10) 18.1

□ **(네덜란드)** 발달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중계무역을 통해 유럽 국가 중 유일한 순위 상승세 시현하며 '12년 무역 5강 진입

○ 유럽시장의 관문으로, 로테르담항과 스키폴 공항 등의 선진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중계·복합무역*이 발달

* 운송, 보관, 라벨링, 가공 등 물류서비스산업 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무역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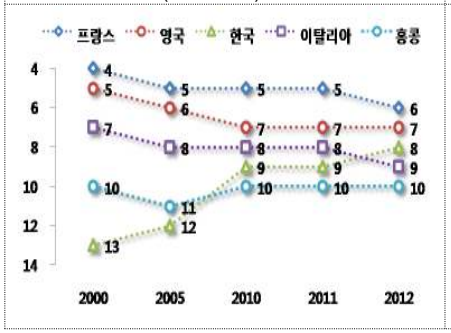
○ 석유제품 수출 비중이 높아* '00년대 중반 이후 유가 상승에 따라 수출·무역규모**가 지속적으로 확대

* 네덜란드 주요 수출품목('11년 비중) : 석유제품(10.0), 컴퓨터(3.8), 통신기기(3.7), 원유(2.6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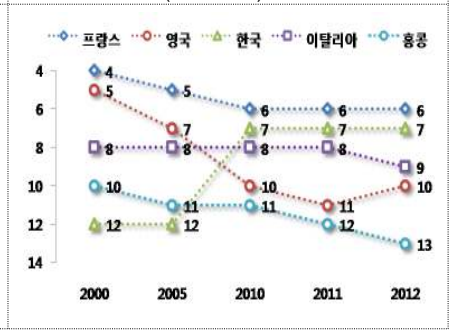
** 수출규모(억 달러) : ('05) 4,064 → ('12) 6,564 / 무역규모(억 달러) : ('05) 7,702 → ('12) 12,474

< **(참고)** 세계 무역 6~10强 수출 및 무역순위 추이 >

< 무역 6~10强('12년 기준) 무역순위 추이 >



< 무역 6~10强('12년 기준) 수출순위 추이 >



3. 정책적 시사점

1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강소기업(Hidden Champion) 육성

○ 세계 무역 8강 진입에도 불구하고 大-中企간 수출 양극화가 심화* 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가 상대적으로 미진

* 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(%) : ('01) 42.9 → ('09) 36.9 → ('10) 34.5 → ('11) 33.0

- 독일 히든챔피언*과 같은 글로벌 강소기업 부재로 세계시장 1위 품목 개수**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저조

* 세계시장 점유율 1~3위, 매출액 40억불 이하로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(獨 Hermann Simon 정의)

** 주요 국가별 수출 1위 품목 수('11년, HS6단위 기준, 무역협회) : (중국) 1,431 (독일) 777 (미국) 589 (이탈리아) 230 (일본) 229 (네덜란드) 135 (한국) 61

○ 글로벌 판로 개척 및 R&D 등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'한국형 히든챔피언' 기업으로 육성

2 지식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중계·복합무역 등 진흥

○ 국내 제조업 생산 여력(Capacity)에 한계가 있어 기존 상품위주의 수출만으로는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

- 플랜트엔지니어링, 유통물류, 컨설팅,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

○ 특히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선진 물류를 바탕으로 패키징, 라벨링, 가공 등을 기존 상품수출과 융합한 중계·복합무역 진흥

3 국내 수출기반 유지 노력 필요

○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의 증가*에 따라 국내 수출기반의 약화가 우려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수출유발효과도 점차 하락**하는 추세

* 해외투자 규모(억 달러, 송금기준): (`05) 72 → (`09) 204 → (`12e) 232

** 제조업 해외법인 국내매입 비중(%) : ('05) 39.6 → ('08) 33.9 → ('10) 29.5

○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별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을 혁신클러스터化* 하여 수출 기반을 유지

* (사례) 美 실리콘밸리, 中 중관촌 등 정보기술·하이테크 산업 단지